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0년 3월 17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² 	인구 95.494백만명 (2019기준)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대외정책 미국, 중국과 균형외교 
GDP 2,616억 달러 	1인당GDP 2,740 달러 	통화단위 Dong 	환율(U\$기준) 23,224.0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도입하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음.
-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정치적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치면에서는 그간 공산당 서기장 · 총리 ·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주석직을 겸하고 있으며, 부정 부패 척결 및 국유기업 개혁 등의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22 수교 (북한과는 1950. 1. 30)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무역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3), 항공협정(1993),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과학기술협정(1995), 원자력협정(1997), 사증면제협정(1999), 기술협력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0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47,753,839	48,622,098	48,177,684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수입	16,176,992	19,643,385	21,071,447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 9월말 누계,총투자기준) 6,909건, 22,897백만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e
경제성장률	6.7	6.2	6.8	7.1	6.5
소비자물가상승률	0.6	2.7	3.5	3.5	3.6
재정수지/GDP	-6.4	-3.9	-4.7	-4.4	-4.4

자료: IMF

• 내수소비 증가, 수출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세 지속

- 2019년 베트남 경제는 내수소비 증가와 휴대폰, 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수출 증대에 힘입어 6.5%의 성장을 달성하였음. 주요 해외 시장의 성장 둔화로 수출성장세가 약화(전년대비 수출증가율: '18년 13.8%→'19년 8.1%)되며 경제성장률도 전년(7.1%)보다 다소 둔화되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6.7%로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베트남은 낮은 임금과 정치적 안정성 등의 장점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지속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베트남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6.8%로, IMF, 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6% 중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음력설 연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관광 분야 위축으로 1분기 성장률은 연간 목표치 대비 1%p 정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이번 사태의 영향이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 부문에도 미칠 것으로 보임.

* 2019년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농림어업 4.6%, 건설·제조업 50.4%, 서비스업 45.0%

•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전기요금 인상 효과의 영향, 국제유가 상승의 와중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19.12월 식료품 가격 전년동기 대비 12.5% 상승), 의료서비스 가격 4.65% 인상, 최저임금 5.3%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식료품 가격에 대한 영향이 유지되고 최저임금 5.5% 인상이 결정되어 물가상승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공공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원유 생산 등 세수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도로와 항만 등 각종 대형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8년 재정수지는 인프라 개발 및 정부부채 이자 지급 등으로 GDP 대비 -4.4%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19년에도 동부 북남고속도로 1단계 사업(총 11개 고속도로 포함, '19년 착공) 등 인프라 부문 대규모 재정지출이 지속되면서 GDP 대비 -4.4% 수준의 적자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e
경 상 수 지	-2,041	625	-1,649	5,899	7,506
경상수지/GDP	-1.1	0.3	-0.7	2.4	2.9
상 품 수 지	7,374	11,042	10,846	16,540	18,523
상 품 수 출	162,017	176,581	215,119	243,697	263,175
상 품 수 입	154,643	165,539	204,273	227,157	244,652
외 환 보 유 액	27,879	36,167	48,693	55,074	72,556
총 외 채	78,200	89,419	108,279	120,340	134,286
총외채잔액/GDP	40.9	44.4	49.1	49.9	51.3
D.S.R.	4.0	3.9	6.0	4.3	4.4

자료: IMF, EIU, OECD

• 수출규모 확대와 수출품목 고도화로 최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시현

- 베트남의 2019년 수출 및 수입은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0% 및 7.7%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8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주력 수출품목 중 휴대전화 및 그 부품(19.7%),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품(13.5%)이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전통적 수출품목인 섬유 및 의류제품(12.4%), 신발류(6.9%)의 비중은 축소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중심의 양호한 수출증가세 지속 전망

- GDP 대비 총수출은 2015년 90.8%에서 2019년 107.5%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수출지향적 외국인직접 투자의 지속 유입과 양자간·다자간 FTA 신규 발효 등 양호한 대외거래 여건에 힘입어 향후에도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치**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9년 중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3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수출 호조로 GDP 대비 2.9%의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액은 2019년 말 726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19년 베트남 FDI 유치 현황

순위	투자국(비중)	투자 부문(비중)	투자 지역(비중)
1	한국(20.8%)	제조업(64.6%)	하노이(22.2%)
2	홍콩(20.6%)	부동산업(10.2%)	호치민(21.8%)
3	싱가포르(11.8%)	도소매 등 기타	동나이 등 기타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 수입 증가로 인해 최근 5년 간 외환보유액 규모는 월평균수입액의 2개월분 내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큰 폭의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2019년말 기준 3.1개월로 전년(2.5개월) 대비 상당히 개선되었음. 또한 총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잔액 비중 역시 2019년 말 36.2%로 전년(47.7%) 대비 개선됨.

구조적취약성

• 수출의 단일산업 의존도가 낮아 산업구조는 안정적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수출품목은 전화기 및 그 부분품(19.7%),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13.5%), 섬유 및 의류제품(12.4%) 등 상위 6개 품목이 총 수출액의 63.4%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OECD에서 발표한 베트남의 비제조업 부문 단일산업 수출의존도는 4.3%(관광산업)로, 특정품목 및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아 산업구조는 안정적으로 평가됨.

• 무역의존적 경제구조로 환율 변동에 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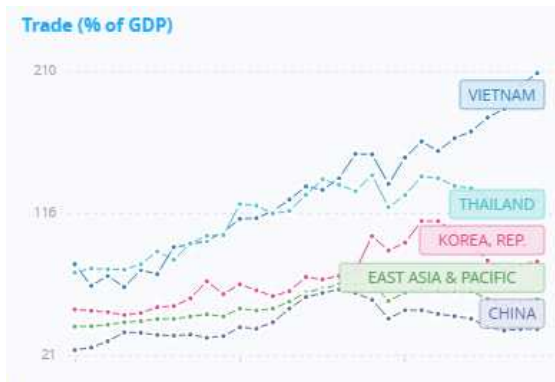
- 베트남은 무역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율 변동에 민감하나, 달러화 대비 동화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동화/달러화 연평균환율: '17년 22,370.1→'18년 22,602.0→'19년 23,224.0)을 유지하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당분간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동(dong)화의 완만한 평가절하를 지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을 고려시 정부 개입에 한계가 예상됨.

성장잠재력

• 풍부한 수출지향적 FDI 유입으로 수출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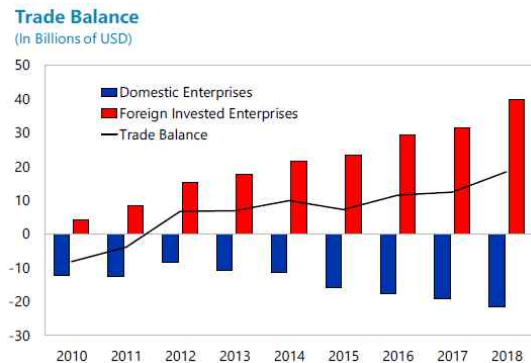
- 베트남은 수출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로,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활동이 활발하며 휴대폰 및 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수출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지정학적 이점에 힘입어 FDI가 꾸준히 유입되며 역내 제조업 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9년 수출의 약 69%(1,814억 달러)가 FDI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국내기업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FDI기업들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데 힘입어 전체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1990~2018)



자료: Worldbank

FDI기업군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 달성



자료: IMF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조사 대상 141개국 중 77위로, 특히 항만(83위)/전기공급(84위)/항공(103위)/도로(104위) 부문이 취약함.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역내 제조기지 대체지로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나, 열악한 운송·물류 인프라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한계가 예상됨.
- 도로·항만·전력 등 인프라 환경의 열악함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2019년 예산의 27%(정부 추정치 기준)를 투자 및 개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구 1억 명에 이르는 소비시장 성장 기대

- 2019년 인구 추정치는 95백만명에 달하며, 30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 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동산 등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정책성과

• 2019년 CPTPP 및 ASEAN-홍콩 FTA 정식 발효

- 2019년 1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정식 발효되었음. 베트남은 CPTPP를 통해 회원국, 특히 기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캐나다, 페루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 CPTPP 회원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및 베트남(11개국)
- 2019년 6월 ASEAN-홍콩 간 FTA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 정식 발효되었으며 2020년 2월 필리핀을 마지막으로 모든 ASEAN 회원국에서 발효되었음. 동 협정에 따라 베트남의 경우 75%의 제품에 대해서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14년 이내에 10% 추가 관세 인하 예정임.

• 2020년 중 EU-베트남 FTA 발효 예정

- 베트남과 EU는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EVFTA)를 정식 체결하였으며, 2020년 2월 12일 EU의회 전체회의에서 EVFTA를 비준하였음. 베트남 정부도 정식 승인 및 발효를 위해 산업무역부가 각 부처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5월 의회 비준이 예상됨.
- EVFTA에 따라 양측은 향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베트남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EVFTA는 베트남의 노동환경 및 노동법을 보다 국제기준에 합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 베트남 정부는 이미 독립적인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동 개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도모**

- 베트남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국영기업 583개사(2016년 기준)를 완전 또는 부분 민영화하여 2020년까지 103개사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그러나 과도한 매각가격 책정,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감,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당초 기한인 2020년까지 200개 이하의 민영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부는 금년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영기업 주식소유 한도를 49%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할 계획임.

-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은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 등 금융 부문의 안정성 개선**

- 2017년 8월 시행된 'Resolution 42'를 통하여 대출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의 담보 자산 처분 절차가 신속해짐에 따라 상업은행의 건전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또한 은행권의 합병을 도와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은 은행이 소규모 은행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적 개혁을 도모함.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은행권 안정성 순위는 141개국 중 114위(설문조사 방식)로 여전히 금융 부문의 취약성 개선이 필요함.
- 베트남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2012년중 4.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축소되어 2018년 말 역대 최저치인 1.9%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6월 말에도 1.9%로 관리되어 양호한 수준임.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0년 말 기준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 목표를 2019년과 마찬가지로 2% 이하로 설정하였음.

정치동향

- 2018년 10월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권력 집중 우려
 -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공산당 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으나, 2018년 9월 쩌 다이 꾸앙(Tran Dai Quang)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이후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고 있음.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주석의 1인 겸직은 호치민 이후 처음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음.
 - 2021년 상반기 중 개최될 5년 만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공산당 서기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쩡 주석이 겸임을 유지할 예정이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대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사회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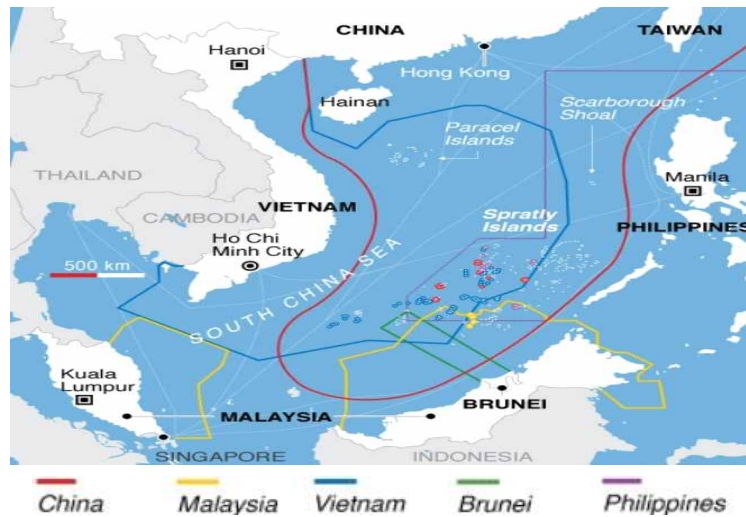
- 사이버보안법 시행 등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비난에 강경 대응
 - 2017년 형법 개정으로 정권에 비판하는 의견 표현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계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시물의 24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
 -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전제주의적 정보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일시적인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 2019년 8월 하노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반대 시위가 수차례 발생하였음. 2018년에도 베트남 정부가 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99년 간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에 특혜를 부여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하노이·호치민 등에서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음. 당시 반대 여론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 임대 기간은 70년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대하는 공산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위와 같은 시위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규모 형태의 시위는 거의 없으며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국제관계

• 중국과는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분쟁 지속

-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도 중국의 남중국해 경제권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남중국해의 원유·천연가스 개발, 중국의 인공섬 조성 및 해군 배치, 미국의 적극 개입 선언 등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역내 국제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임.
- 2018년 4월 베트남-중국 외교장관 간에 남중국해 공동 개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는 등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중시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7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중국 지질조사국 소속 선박이 중국 해안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베트남 해안 경비정이 추격하여 수주간 대치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 자료: Voice of America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인도 등과 안보 동맹 강화 추진

-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접국 외에도 일본·인도 등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강국들과의 유대를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에 베트남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하고 베트남을 동 지역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음.

• 2020년 ASEAN 의장국 수행 등 대외역량 강화 기대

- 베트남은 2020년 ASEAN 의장국 담당,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2020/21년) 등 지역 강자로서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수행과 역내외 입지 강화가 기대됨. 특히 ASEAN은 2002년 중국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 DOC)을 채택한 주체로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통의 안보 목소리를 모으는 데 주력하여 왔는데, 베트남이 의장국이 되어서 남중국해 문제를 어떤 성격으로 이끌지 주목됨.

외채상환태도

- **증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총외채의 약 80% 이상이 증장기 차관으로 구성되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도 4%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19년 9월 말 기준 베트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채무 잔액은 단기 24억 달러, 증장기 117억 달러 등 총 140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은 증장기 460만 달러(0.03%)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임.

- **충분한 외환보유액 유지로 대외지급능력 양호**

-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FDI 유입, 경상수지 흑자 증가세 등으로 인해 전년 말(551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한 726억 달러로 추정됨. 이는 단기외채잔액의 2.8배 수준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등급(2019.06)	5등급(2018.06)
Moody's	Ba3 (2018.08)	B1 (2017.04)
Fitch	BB(2019.05)	BB(2018.05)

-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와 OECD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

- 2018년 5월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BB- → BB), 동년 8월 Moody's도 경제성장 지속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B1 → Ba3). 2019년 4월 S&P 역시 균형잡힌 국제수지, 견고한 FDI 유입, 관리 가능한 수준의 대외 부채 등을 이유로 9년 만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BB- → BB).
- 2019년 6월 OECD에서도 정치 안정, 경제성장세 지속, 외채상환부담 감소 등을 근거로 베트남의 국가 위험도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베트남 경제는 풍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최근 5년 평균 6.7%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 국영기업 개혁, 은행 건전성 제고 등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 중임.
- 공산당 1당 체제로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쯤 다이 쩡 주석의 사망 이후 응우옌 푸 쩡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며 정치적 안정성과 권력 집중도가 더욱 높아진 상황임.
- 젊은 인구구조 및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ASEAN 내 제조업 중심지로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특히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음. 그러나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등 하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함.
- 우리나라는 베트남 앞 해외직접투자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ASEAN 지역 내 거점 중심지로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임.